



"SunnyDay@피비스"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_1704호



MyLove기다려줄래널찾을때까지내운명을믿을게.조금씩천천히네게다가날볼수있도록웃을게.그대하늘가득히내햇살이비춰줄때면.그설레이는미소속에말해줘.그델향한마음과두근대는가슴으로나.그대와함께꿈을꾸는거야
[문법]+[설월이 만창한데]+[창 내고자]+[개를 여라은이나]+[선우사-함주시초 4]+[벼]+[용문전]+[서울 1964 겨울]



05_ <보기>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世.생 宗宗 御.영 製.정 訓.훈민민正.정음음
 나.랏 : 말싼·미中 東國·귀에달·아文문字·짱·와·로 서르스뭇디아·
 니홀·씨·이런전·츠·로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
 무·츄 : 내제·쁘·들시·러퍼·디 : 몬홍·노·미하·니·라·내·이·롤爲·왕·
 흥·야 : 어엿·비너·겨·새·로스·믈여·똥字·짱·롤밍·기노·니 : 사름 :
 마다 : 히·예 : 수·비니·겨·날·로·뿌·메便便安한·크·히·고·저홍·쁘르·
 미니·라

-훈민정음 中, 세조(世祖) 5년(1459)

[현대어 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를 통해 서로 소통하지 못하므로 이
 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전달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마땅히 실어 퍼지 못할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
 여 불쌍하게 여겨 새로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
 금 쉽게 익혀 매일 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①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말싼·미'는 이어적기 표기 방식
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②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中東國·귀에'의 '-에'는 장소를
가리키는 격조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③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어·린'의 의미가 현대 국어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O/X
- ④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노·미하·니·라'의 '-하나라'는
동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⑤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쁘르·미니·라'에서 지금은 쓰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발견할 수 있다. O/X

06_ <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감수甘受 / 감안勘案 / 간극間隙 / 분할分割
 치료治療 / 치유治癒 / 반출搬出 / 논의論議
 합의合意 / 함의含意 / 경시輕視 / 초토焦土

- ① 병원에서 내 마음을 []해 줄 수는 없다.
- ② 너 없는 내 마음은 아마도 스스로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 ③ 학생 식당에 숨어들어가 다음달 치식단을 몰래 []한 그 친
구는 한 달 간 학생들에게 명예 회장으로 섬김을 받았다.
- ④ 메뉴에 대한 []가 늦어져 도통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 ⑤ 친구를 기다리다 흘러가 버린 5분쯤 []할 수 있다.
- ⑥ 늦어버린 친구를 어떻게 응징할지 []해야 한다.
- ⑦ 학교 성적이 인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 ⑧ 약속시간을 []하는 그 친구를 응징하기 위해 뽕망치를 준
비했다.
- ⑨ 친구가 늦게 올 것을 []하여 약속 시간을 정했다.
- ⑩ 그들은 케이크를 똑같은 크기로 []하는 방법으로 한 시간
동안을 다뤘다.
- ⑪ 원하는 점수와 현재 내 점수와 의 []을 채우기 위해 나는 오
늘 하루도 잘 살았다.
- ⑫ 점수를 매기는 족족 자꾸 틀리기만 해서 []의 상황이 됐던
시험지는 알고보니 채점을 잘못된 시험지여서 좀 슬플 뻔 했다.



문학> 고전문문편>

[가]

- 01 설월(雪月)이 만창(滿窓)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 02 예리성(曳履聲)*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건마는
- 03 그림고 아쉬운 때면 행여 권가 하노라
-작자 미상, '설월이 만창한데'
*예리성: 신발을 끄는 소리.

[나]

- 01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02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똥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03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작자 미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다]

- 01 개를 여러문이나 기르되 요 개궂치 알미오라
- 02 뒤편 님 오며는 소리를 화해 치며 뉘락 누리 뉘락 반겨서 내듯 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라가게 훈다
- 03 쉼밥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작자 미상, '개를 여러문이나'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가] ⇨
- [나] ⇨
- [다] ⇨

02_출제자의 [시어뤄니]

[가]

- ① '바람'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예리성'은 화자에게 (□그리움의 / □기쁨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때'는 (□과거의 / □현재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기르'는 (□화자의 / □대상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⑤ '창'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하 답답홀 제'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여다져 볼'수 있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⑧ '요 개'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뒤편 님'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소리를 화해 치며 뉘락 누리 뉘락 반겨서 내듯'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 □동떨어진)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고온 님'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뒷발을 버둥버둥'거리는 것은 (□반가움의 / □경계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쉼밥'은 상대에 대한 (□호의의 / □악의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② 가~다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다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④ 가,나와 달리 다는 대구를 이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가와 달리 나, 다는 부분적으로 정형적 율격이 파괴되어 드러난다. O/X
- ⑥ 가~다 모두 그리움의 감정을 작품 창작의 계기로 삼고 있다. O/X
- ⑦ 가, 나는 다와 달리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⑧ 가~다 모두 시간의 흐름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O/X
- ⑨ 다는 가,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⑩ 나는 가, 다와 달리 유사한 이미지의 시어를 늘어놓아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⑪ 가~다 모두 계절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O/X
- ⑫ 가는 나, 다와 달리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O/X
- ⑬ 나는 가, 다와 달리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추상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⑭ 가, 다는 나와 달리 의인법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⑮ 나, 다와 달리 가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낯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 02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 03
- 04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 05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 06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 07
- 08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 09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 이 들은 탓이다
- 10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 11
- 12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여졌다
- 13 착하다착해서 세관은*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 14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 15
- 16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 17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 18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 19
- 20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 21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 22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백석, '선우사 -함주시초 4'

*세관은: 성질이나 기세가 억센.

[나]

- 01 벼는 서로 어우러져
- 02 기대고 산다.
- 03 햇살 따가워질수록
- 04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05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06
- 07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08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 09
- 10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 11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출출 때,
- 12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 13
- 14 벼는 가을 하늘에도
- 15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 16 바람 한 점에도
- 17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 18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 19
- 20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 21 이 넓디넓은 사랑,
- 22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 23 이 피 묻은 그리움,
- 24 이 넉넉한 힘……

-이성부, '벼'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뒀니]

[가]

- ① '쓸쓸한 저녁'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쓸쓸한 저녁'은 (□세속적 / □탈속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우리'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잔뼈가 굵은 탓'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희여졌'음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파리한' 것은(□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가난, 외로움, 누구'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세상'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⑨ '벼'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햇살'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이웃들'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몸을 묶'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죄'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불타는 마음'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소리 없이 떠나가'는 모습은 (□도피의 / □희생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가슴이 더운'것은(□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다시 일어서'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피 묻은 그리움'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⑲ '힘'은 (□소수에게 집중된 / □다수의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가와 나 모두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며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②가와 달리 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③가와 나 모두 여운이 남는 형태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X
- ④가와 나 모두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달하고 있다. O/X
- ⑤가는 나와 달리 희생적 이미지를 지닌 대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O/X
- ⑥가와 나 모두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⑦가와 나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 O/X
- ⑧가는 나와 달리 시상이 진행되며 과거에서 현재로 시점이 이동하고 있다. O/X
- ⑨가와나 모두 시적 대상들끼리의 연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O/X
- ⑩가는 나와 달리 수미상관의 형태로 주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문학> 고전소설편>

- 01 [앞부분 줄거리] 호국에서 태어난 용문은 어린 시절 연화 선생에게 병법과 무예를 배운다. 어느 날 용문은 하늘로부터 석함을 받는데, 그 석함 뚜껑에 새겨진 ‘명나라 대사마 대장군 용문은 친히 열어 보라.’라는 글귀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 후 용문은 명나라를 공격하려는 호왕에게 발탁되고, 명나라와의 전쟁에 출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하지만 용문은 명나라의 노왕인 소대성과의 치열한 전투 후 호왕과 비교되지 않는 소대성의 인물 됴됨이에 경탄한다. 명나라 편에 선 연화 선생은 설영두를 통해 용문에게 서찰을 보낸다. 설영두는 용문을 만나 명나라로 넘어오라고 회유한다.
- 02
- 03 각설. 설영두가 본진으로 돌아와 선생에게 용문의 답장과 주고받은 말을 낱낱이 고하니, 선생이 크게 기뻐해 그 답장을 뜯어보았다.
- 04 “호국 대사마 대장군 용문은 선생께 한 통의 서찰을 올리나이다. 선생의 슬하를 떠난 지 이미 10년이어서 생각지도 못한 선생의 친필을 받아 보오니 ‘안녕하시다’ 하여 기쁜 마음 헤아릴 수가 없사옵습니다. 곧장 나아가 그간 찾아뵙지 못한 죄에 대해 질책을 받고자 하오나, 서찰 가운데 극히 놀라운 말이 있고 호국 장졸의 이목이 있어 마음대로 가지 못하오니, 무정타 마시고 용문이 나아가 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 05 설영두가 다시 아뢰었다.
- 06 “방금 ‘호국 도성이 비었다’ 하오니 바빠 이름난 장수를 보내어 저들이 미처 대비하기 전에 습격하소서.”
- 07 선생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예병 삼 만을 뽑고서 심회양을 불러 말했다.
- 08 “그대는 이리이리하라!”
- 09 심회양이 선생의 명을 듣고 군병 삼 만을 지휘해 호국에 쳐들어 가는데 북소리와 함성이 하늘과 땅을 울리니 도성을 지키던 장수와 군졸 가운데 누가 감히 대적하리오. 북소리 한 번 만에 도성을 빼앗고 승전한 소식을 서신으로 보내니, 여러 장수와 군졸의 기뻐하는 소리가 진동했다. 심회양이 성안의 백성을 모두 안정시키고 위로한 뒤에 여러 장수들에게 “잘 지키라.” 하고 군사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왔다.
- 10 각설. 호국의 군사가 허둥지둥 ‘명나라 장수가 노둔정에 매복했다가 도성을 쳐서 빼앗고 백성을 진무한 사연’을 고하니, 호왕이 이 말을 듣고서 몹시 놀라며 크게 화를 내고 재빨리 군사를 총지휘하며 용문을 찾았지만, 산으로 들어간 용문이 어찌 진중에 있으랴. 호왕은 할 수 없이 몸소 징을 쳐
- 11 “적병을 막으라.”
- 12 하고 북을 울리며 들어갔다.
- 13 이때 용문이 산으로 들어가 달이 뜨기를 기다려 호국을 버리고 말 한 필에 검 하나만을 비껴들고 밤을 틈타 명나라로 갔다. 이리구러 명나라의 지경에 다다랐는데, 산천이 수려하고 인물들이 모두 비범했으니 진실로 대명이었다.
- 14 호왕은 용문이 명나라로 간 것을 알고 더욱 분함을 이기지 못해 점점 싸움을 독려하는데, 서선왕 중달을 선봉으로 삼고 서적왕 호척을 좌장군으로 삼아 정예병 삼 만을 거느리고 바로 그날 행군해 다시 명나라로 향했다.
- 15 이즈음 용문은 명나라에 들어가 노왕 소대성과 설영두에게 자신이 찾아왔음을 먼저 알렸다. 노왕과 설영두가 이 소식을 듣고

- 몹시 반가워서 복장을 갖추어 100리 밖까지 나가 영접했다.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곧장 성으로 되돌아와서 선생을 뵈었다. 3일을 머문 후에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취하도록 권하며 즐거워 하더니, 선생이 용문에게 말했다.
- 16 “이윤은 발 갈기에 힘쓰다가 은나라 왕인 탕왕을 섬겨 나라를 세우는 대업을 이루었나니, 군자가 마땅히 어두운 데를 버리고 밝은 데로 돌아가 성군을 섬겨 사직을 받들 것이거늘, 그대는 궁벽한 시골의 농부 되기를 어찌 자청하느냐? 이 늙은이가 8년 동안 가르친 것을 속절없이 버리려 하니, 이는 그대 마음대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바 아니로다.”
- 17 말을 마친 연화 선생이 장수들의 지휘소로 들어가자, 노왕이 친히 술을 부어 용문에게 권하며 말했다.
- 18 “장군의 생김새를 보니 반드시 대장의 기상이라서, 일찍 공을 세워 이름을 역사에 전하고자 대명의 충신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제 북호를 도와 천지를 요란하게 한다면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 농부 되어 더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요. 하지만 장군 같은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지략을 지닌 이가 초목과 함께 늙는다면 뉘라서 그대를 알아주겠소? 하물며 연화 선생이 비록 세상에 나왔으나 근본은 옥경의 선관이요, 그대와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의리를 중하게 여기시니, 장군은 다시 생각하십시오.”
- 19 용문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즉시 선생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장막 아래 꿇어 말했다.
- 20 “제가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해 선생의 교훈을 거슬렀사오니, 선생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명나라를 섬기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물불이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좃을 것이오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역사에 더러운 이름이 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또한 자기 나라 임금을 멸한다면 옛날 위나라 장수 여포의 행실과 다를 바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선생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분부해 주시옵소서.”
- 21 선생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분부했다.
- 22 “이 늙은이가 너를 가르쳤거늘 어찌 그만한 일을 모르겠느냐? 한나라의 장량과 한신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 23 하시니, 용문이 문득 석함의 신기한 글을 생각하고 선생에게 말했다.
- 24 “선생의 말씀대로 명나라를 돕겠나이다.”
- 25 “이제야 네가 흐려진 정신이 맑아지니 이 늙은이의 마음이 즐겁도다. 네가 뛰어난 재주와 원대한 지략을 가지고 있으나 하늘의 뜻에 항거하고서 어찌 이름을 세상에 알리리오. 네 부모가 북쪽에 있으나 호왕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명나라가 천명을 받아 조만간 북호를 멸망시키면 그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떨치리라.”
- 26 <중략>
- 27 이때 호진의 장수들과 군졸들이 모두 용문이 명나라로 간 것을 두고 몹시 분노해 호왕에게 아뢰었다.
- 28 “용문의 아비인 용훈이 청수강 가에 사오니 급히 잡아다가 군대 안에 두고 제 아비에게 편지를 쓰도록 재촉해 명나라 용문에게 전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 29 호왕이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즉시 장수를 불러 군사 30명을 주어 용문의 아비를 잡아다가 지휘대 아래 꿇어앉히고, 호



- 왕이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 30 “네 자식이 역적이 되어 호국을 배반하고 명나라로 갔으니, 네 자식의 대로부터 구족을 다 멸하는 것이 옳으나, 편지를 해 용문을 돌아오게 하라!”
- 31 용훈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 32 “법지불행(法之不行)은 자상범지(自上犯之)라 했으니,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로 소이다. 선왕부터 법을 모르고 하늘의 뜻을 거슬렀으니, ‘누구를 그르다 하며 누구를 옳다’ 하리오. 용은 용을 좇고 영웅은 성군을 따르나니, 전하께서 이것을 그르다 하니 영천수가 멀지 않으면 귀를 씻고자 하나이다.”
- 33 호왕이 이 말을 듣고서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용문전'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장면이 바뀔 때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드러나 있다. O / X
- ②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O / X
- ③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중심 인물의 미래가 예언되고 있다. O / X
- ④ 중심 인물의 비현실적 전투 능력이 과장된 표현과 함께 드러나 있다. O / X
- ⑤ 전기적 특징과 군담 소설의 특징이 함께 드러나 있다. O / X
- ⑥ 독백을 통해 중심 인물의 내적 갈등 상황이 드러나 있다. O / X
- ⑦ 용문은 스승이 보낸 첫 서찰을 받자마자 서둘러 명나라로 떠나게 된다. O / X
- ⑧ 용문은 양국의 두 임금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다. O / X
- ⑨ 용문과 노왕은 용문이 연화 선생의 편지를 받아 방문한 명나라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O / X
- ⑩ 연화 선생은 용문의 재주와 지략을 하늘의 뜻조차 바꿀만큼 대단한 것으로 여긴다. O / X
- ⑪ 용문은 명국에 호국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호국을 배반한다. O / X
- ⑫ 연화 선생은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O / X
- ⑬ 연화 선생의 대사를 통해 연화 선생이 운명론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 X
- ⑭ 용문은 자신이 호국을 떠나는 이유가 임금에게 있음을 호국 왕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O / X
- ⑮ 연화 선생은 용문이 보인 절개에 자신의 뜻을 접고 용문과 호국을 돕게 된다. O / X



문학> 현대소설편>

- 01 <이전 줄거리>
- 02 1964년 서울 겨울, '나'는 선술집에서 '안'이라는 대학원생을 우연히 만난다. 나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낙방하고 제대한 뒤 구청 병사계에 근무하는 25세의 청년이고 동갑인 안은 부유해보인다. 둘은 시시껄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된다. 자리를 떠나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여관에 들기로 합의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가난해 보이는 서른 대여섯살의 한 사내가 함께 데려가 줄 것을 간청한다.
- 03
- 04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 05 “몹시 출근요.”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 06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안]'이 말했다.
- 07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 08 “그게 좋겠지요?”
- 09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 10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 11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 12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 13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 14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 15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 16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 17 “[화투]”라고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 18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 19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 20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 21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 22 “예?” 나는 잠이 깨곳이 깨어 버렸다.
- 23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 24 “역시…….” 나는 말했다.
- 25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 26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27 “[자살]”이지요?”

- 28 “물론 그것이겠죠.”
- 29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 30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 31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 32 “난 짐작도 못 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 33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 34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 35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 36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 37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 38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39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 했다가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 40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춰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춰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 41 “김 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 42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 43 “나두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가웃했다.
- 44 “두려워집니다.”
- 45 “뭐가요?” 내가 물었다.
- 46 “그 뭐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 47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 48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 49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 50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 51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안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초점화된 인물이 바뀌며 서술자가 교체되고 있다. O/X
- ② 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공간이 이동함에 따라 인물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O/X
- ④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⑤ 서술자에 의해 인물들의 내적 심리가 묘사되고 있다. O/X



- ⑥ 성격이 다른 인물들을 배치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 ⑦ 작품 속 사건시와 서술시가 다르게 설정되어 나타나 있다. O / X
- ⑧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중심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O / X
- ⑨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 ⑩ 비속어를 사용하는 인물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3_<보기>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17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는 이전까지 전통적 인간관계로 당연하게 여겨지던 '집단적 인간관계'를 '개인적 인간관계'로 재편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집단적 인간관계'가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며 서로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지향했다면, '개인적 인간관계'는 '우리'보다 '나'를 강조하며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둘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람들은 각자 타인에게 무관심하게 되었고, 개인 혹은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를 회피하거나 피상적 관계를 형성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에 거리를 두게 되었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은 산업화 시대를 살며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 ① '우리'라는 호칭이 주는 본디 의미와는 달리, 작품 속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 X
- ② '아저씨'는 '나', '안'과 집단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를 소망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O / X
- ③ '아저씨'와 달리 '안'과 '나'는 모두 각자의 방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O / X
- ④ '나란히 붙은 방 세 개'는 붙어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다는 특징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 / X
- ⑤ '화투'는 인물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소재로 볼 수 있다. O / X
- ⑥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은 '우리'에 합류하고 싶은 인물들의 바람이 반영된 행위로 볼 수 있다. O / X
- ⑦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잔' 것은 '아저씨'를 위해 '나'를 양보하고 '우리'를 지향한 데에서 온 만족감에서였을 것이다. O / X
- ⑧ '아저씨'의 '자살'은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O / X
- ⑨ '개미 한 마리'는 '나'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재로 볼 수 있다. O / X
- ⑩ '약'은 '아저씨'가 진정한 인간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며 복용한 소재로 볼 수 있다. O / X
- ⑪ '겨우 스물다섯 살'은 '나'와 '안'의 반성적 시각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 / X
- ⑫ '양상한 나뭇가지'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결여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O / X



+@ / +ㅈㅊㄴㄹㅂㅣ

단[어]의[의]미

- 감수甘受_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임.
- 감안勘案_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 간극間隙_두 가지 사건, 두 가지 현상 사이의 틈.
- 분할分割_나누어 쪼갬.
- 치료治療_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 치유治癒_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
- 반출搬出_운반하여 냄.
- 논의論議_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 합의合意_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
- 함의含意_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또는 그 뜻.
- 경시輕視_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김.
- 초토焦土_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미래에서온[고전문문]

해적 병설

[가]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원천석@17E수특

- 01 눈썹맞아 휘어진겨 대나무를 누가굽대?
- 02 굽힐멘탈 이었으면 찬눈속에 푸르겠니
- 03 이추위에 높은절개 대나무너 뿐이로다

[나]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작자 미상@17E수특

- 04 하이데얼 디스이즈 동난젓갈 세일포유
- 05 물건파는 저장수야 뭐라는겨 뭐파는겨
- 06 걸딱지는 단단하고 속살맛은 사르르르
- 07 큐트두눈 위로숫아 실쪽샬쭈 하늘보고
- 08 리틀풋은 여덟개요 휴즈풋은 두개이요
- 09 푸른창자 아사사삭 동난젓갈 세일포유
- 10 저장수야 그거그냥 게젓갈이 아니더냐
- 11 거북하게 어려운말 쓰지말고 그냥팔아

[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작자 미상@17E수특

- 12 센척난척 떡두꺼비 약골파리 입에물고
- 13 두엄위에 달려앉아 거드름을 피워낸다
- 14 날씨좋아 입맛좋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 15 오마이갓 송골매가 하늘위에 떠있구나
- 16 심장하트 졸깃졸깃 도망가다 자빠졌네
- 17 에헬에헬 두꺼비의 한마디를 들어보라
- 18 마침다행 운동신경 잼싼나라 망정이지
- 19 다른동물 이었으면 피멍들뻥 했네그려



+@ / +ㅈㅊㄴㅅㅁ

현대어 해설

[가]

- 01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 02 굽을굽힐 절개이면 눈 속에서도 푸를 것인가?
- 03 아마도 겨울의 추위를 이기는 외로운 절개는 오직 너뿐인가 하노라.

[나]

- 04 사람들이여, 동난젓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랴 외치느냐, 사자.
- 05 밖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가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 하는 동난젓 사오.
- 06 장수야, 너무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젓이라 하려무나.

[다]

- 01 두터비가 파리 한 마리를 물고 두힘 위에 뛰어올라 앉아서,
- 02 건넌편 산을 바라보니 무서운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꿈쩍하여 풀떡 뛰어 내달다가 두힘 아래로 나자빠졌구나.
- 03 아이쿠야! 마침 몸이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들 뵈하였구나.

원작품

[가]

- 01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뒤라셔 굽다툰고
- 02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 03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원천석,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나]

- 01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수야 네 황후* 그 무서시라 왜는 다 사자
- 02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으스스흔는 동난지이 사오
- 03 장수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흐렴은
-작자 미상,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동난지이: 게젓.
*황후: 물건.
*청장: 진하지 않은 간장.

[다]

- 01 두터비 프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 02 것년 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써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떡 뛰어 내듯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 03 모쳐라* 날랜 널식만정 에혈*질 번흐괘라
-작자미상, '두터비 프리를 물고'
*백송골: 송골매.
*모쳐라: 마침.
*에혈: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